



윤택한 삶을 위한 문화경제

《문화경제학입문》 번역한 강응선씨

일본은 경제호황기에 메세나협회와 문화경제학회가 발족했으나 그후 바로 거품경기가 사그러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역문화와 세계로 진출한 기업들의 활동은 활발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편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문화예술 지원은 정부보조보다는 기업과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들이 각기 고유한 열의와 아이디어로 지원한다면 지역사회와 문화를 살찌우는 2중의 효과를 볼 수 있지요. 문화지원은 단발로 끝나서는 안되고 지속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뱅크가 될 기구를 결성하기 위해 조만간 경제 경영인, 문화관계 종사자, 문화정책 관계자의 3자가 회동할 계획이라고 귀뜸한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와 문화경제학 관련서적 번역을 계속 준비중이지만 정선없이 바쁜 탓에 마음만큼 번역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이 책이 계기가 되어 국내외 관계서적이 활발히 출간되고 이론이 실천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강응선씨는 문화경제학이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의도광장 공원화’ 계획처럼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 마정미 기자

“경제학의 시각에서 문화를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문화경제학입니다. 스피버그의 영화 한편이 자동차산업의 수익을 앞지른다거나 제품개발과 인력개발 같은 기업경영의 모든 분야가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자각은 문화경제학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고 국민들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윤택한 삶과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화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문화경제학회 회장이자 코도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이케가미 준의 《문화경제학입문》(매일경제신문사)을 번역한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강응선씨(48)는 문화와 경제의 만남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문을 연다.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이 전부이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글을 인용한 서문이 그를 이 책의 번역으로 끌어들었다. 1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정부와 체계의 여러 기관과 일본경제기획청, 노무라종합연구소 등에서 파견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강응선씨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두루 꿰고 있는 전문가.

“우리나라에 문화경제학이 도입된 것은 94년 기업메세나협회가 설립된 이후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이론서 하나 없는 처지라 입문서로 이케가미 교수의 이 책이 적당하다 싶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문화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뒤쳐진 형편이어서 우리가 모험으로 삼거나 혹은 앞서갈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성공한 기획은 매력적이다

《Sexy한 세상을 기획하는 여자》 펴낸 채윤희씨

것이 꿈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채윤희씨에게 출판계는 친정집이나 마찬가지다.

첫 직장으로 문예출판사에 들어가 5년 동안 일했는데 인상 깊은 일도 많았다. 고교 은사인 김희보 선생이 번역한 루 살로메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일은 기억에 새롭다. 강유일씨의 장편소설 《배우 수업》은 방송국을 찾아가 기존편성을 제치고 라디오 드라마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외화홍보는 한달이면 충분하지만 제작 단계부터 함께 작업하는 국내영화는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11월 2일 개봉을 앞둔 외화 《타임 투 킬》의 홍보기획이 한창 진행중이다. 《타임 투 킬》은 미국에서 지난 여름 개봉된 영화로 존 그리섬의 소설 데뷔작을 각색했다.

“체계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서 물 흐르듯이 살고 싶어요.”

정직한 홍보를 하고 싶다는 채윤희씨의 소망이다.

— 최성일 기자

충무로 최초의 여성 영화홍보 기획자 채윤희씨(41, 올댓시네마 대표)는 실패를 모른다. 지난 10년간 채윤희씨가 기획 홍보한 60여편의 영화는 모두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Sexy한 세상을 기획하는 여자》(동방미디어)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홍보기획 이야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를 차지합니다.”

채윤희씨가 말하는 영화에서 홍보의 비중이다. 홍보의 중요성이 덜한 영화가 있는 반면, 홍보를 꼭 해야 하는 영화가 있다. 개봉 전에 이미 화제가 된 영화는 ‘바로 그 영화’라는 한마디면 족하다.

한편 낯선 감독과 배우가 만든 영화는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영화 《네프 므와》.

생소한 감독과 배우, 소극장 개봉, 같은 내용을 가진 할리우드 영화와의 맞대결. 《네프 므와》는 약점 투성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흥행에 성공했다. 여기에는 채윤희씨의 능력이 한몫 단단히 했음은 물론이다.

채윤희씨는 ‘겉치기’ 작업은 하지 않는다. 작품 선정에 까다롭다는 말도 듣지만 후회 없는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정중하게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홍보기획은 요즘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특히 젊은 여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에 대한 애정, 외국어 능력, 홍보에 관한 감각”을 영화홍보 기획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꼽았지만 꾸준히 일하는 성실함과 끈기를 더 높게 평가한다.

“출판사에 다닐 때는 출판사를 차리는 것이, 한창 연극을 할 때는 소극장을 내는





역사를 '환생' 시키는 발굴의 현장

《발굴 이야기》 펴낸 조유전씨

썩쓸하다.

창원 기계공단 부지에서 발굴된 삼한시대 야철지 보존을 두고 산업기지개발 공사와 문화재연구소측이 보였던 팽팽한 대립도 그렇다. 대통령의 명으로 보존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반대로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살아있는 문화 유산의 보고 경주에 고속전철이 지나가도록 결정할 것을 보면 요즘의 문화정책도 그때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조관장은 학자가 학술적 논문이 아닌 대중서로 주목을 받으니 부끄럽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문화재 사랑과 고고학적 발굴이 가지는 의의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바란다. 원래 우리 손으로 발굴한 지 50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50건의 발굴 사례를 뽑으려 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미처 다루지 못한 발굴 사례를 한권 정도 더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책 제목에 얽힌 일화 한 가지. 본래 《고고학 이야기》라는 제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집필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후배인 이선복 교수에게 선수를 빼앗겨 부득이 《발굴 이야기》가 되었다고 밝힌다.

— 이현주 기자

해방 후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고고학의 역사를 되짚은 《발굴 이야기》(대원사)가 나왔다. 조유전(55)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은 30년 가까이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발굴현장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 놓음으로써 성과보다는 반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녕왕릉의 발굴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같으면 흙 한톨도 꼼꼼히 살피면서 1년 넘게 했을 발굴을 하루밤에 해치웠으니, 그 과정에서 없어진 역사를 무슨 수로 되찾겠느냐는 것이다. 유적발굴작업은 역사 복원의 1차적인 자료인 동시에 큰 왜곡을 만들어 내기 쉬워 여간 조심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도 갑작스런 한파로 발굴터의 땅이 딱시루처럼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토기와 기둥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발굴터였기 때문에 날씨가 아니었으면 기둥없는 특이한 집터로 영원히 남을 뻔했습니다.”

뜻밖의 성과를 얻게 했던 당시의 날씨가 꼼꼼하게 되살린 것은 발굴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일지를 소중히 보관해 둔 덕이다. 이 책은 학자가 취해야 하는 태도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나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책입안자나 국민이 문화유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고고학발달 수준이나 보존 여부는 달라집니다.”

현장사진을 카메라 한 대로 찍어야 했던 열악한 현실, 천마총 발굴 당시의 가뭄을 발굴단의 탓으로 돌리며 거세게 반발했던 시민 등은 그냥 웃어 넘기기에 웬지



잊혀진 공동체의 꿈과 아픔

《새벽의 집》 펴낸 문영미씨

모두 '새벽의 집'에서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활 덕분이란단.

아이들에게는 '천국'인 이곳에서의 삶이 여기에 동참한 어른들에게는 모두 좋은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정기적인 수입은 다 헌납하고 노동은 능력에 따라 분담하며 1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가족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공동체 생활은 설사 그 목적과 이념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떨쳐버리기 힘든 가부장적인 관습과 소유욕,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불안, 경제력, 교육수준의 차이 때문에 겪은 갈등 등 참여했던 어른들이 털어놓는 회고에는 이 공동체가 지닌 '한계와 아픔'도 들어 있다.

“당장 공동체를 시작할 생각은 없지만 언제든 기회가 닿는다면 참여할 겁니다.” 두해전 결혼한 문영미씨는 아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줄 수 있는 동화를 쓰는 일과 그 동화를 읽어 줄 예쁜 아이를 낳는 게 소망이다.

— 박남정 기자

《새벽의 집》(보리)은 72년부터 80년까지 약 8년간 이 땅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됐던 작은 공동체인 '새벽의 집'에 대한 일종의 회고록이다. 이 책을 쓴 문영미씨(30)는 어린시절을 '새벽의 집'에서 보냈으며 이 공동체를 주도했던 문동환 목사의 딸이기도 하다. '새벽의 집' 와해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85년 귀국하면서부터 줄곧 방학동(일명 가살피 마을)에 있는 '새벽의 집' 터전을 지키고 있다.

“‘새벽의 집’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가치관과 삶의 뿌리를 정리하는 것이고 나아가 흔치 않은 공동체의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문영미씨(30)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이 책을 쓰기 위해 빗바랜 사진첩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린시절의 일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낸다. 공동체에 참여했다 지금은 빨빨이 흩어져 제각각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새벽의 집'에 대한 기억과 평가에도 귀기울였다.

문씨가 기억하는 '새벽의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던 곳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법이 없고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도 존중받는 곳, 마음껏 뛰놀아도 아단맞지 않는 곳이다. 화장실 구더기의 색깔을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걸림 없는 마음, 기독교도이면서 무당의 푸닥거리를 보며 신명을 느끼는 열린 종교관 등 자신의 기질

